

## 【서평】

# 움직이는 취향, 문학적인 시간

- 김미정, 『움직이는 별자리들』, 갈무리, 2019; 오혜진,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오월의봄, 2019.

인아영\*

### 1.

김미정과 오혜진, 두 문학평론가의 평론집이 매우 비슷한 시기에 쓰이고 출간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이 서평을 시작하려 한다. 김미정의 『움직이는 별자리들』(갈무리, 2019)과 오혜진의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오월의봄, 2019)이 모두 2019년 4월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각각 2000년대 중반과 2010년대 중반부터 동시대 한국문학에 대한 꾸준하고도 첨예한 비평을 이어왔던 김미정과 오혜진의 평론집은 지난 몇 년 동안 평론가이자 연구자로서 축적해온 논문, 평론, 서평, 해설, 칼럼 등 길고 짧은 글을 모은 성과다. 김미정의 평론집이 2000년대 중후반에 쓰인 글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201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쓰인 글들을 모아 놓았다면, 오혜진의 평론집은 2013년에 쓰인 글들부터 포함되어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대개 201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쓰인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 김미정과 오혜진의 비평적인 개성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이전에 두 평론집의 공통점으로, 먼저 이 평론집에 실린 글들이 대체로 발표된 시기와 결국 하나의 책으로 묶여 나온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오혜진의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에 대해 분석적인 서평을 제출한 이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우창은 서평의 서두에서 이 책을 “가장 주목받는 페미니스트 문학비평가의 평론집으로 읽히”는 시선을 거부하는 것이 본 서평의 목적이라고 명료하게 밝히면서, 여성주의적인 문학비평을 고립되고 굳이 폐쇄적인 영역으로 계토화하는 독법을 택하기보다는 텍스트의 맥락을 더 넓게 확장하는 독법으로 읽자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우창의 서평이 연결하고 있는 지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문학장 내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문학과 정치’ 담론이며, 이러한 연결을 통해 이우창은 오혜진의 비평집이 문학비평의 방법과 사회·정치의 이론적 모델 자체를 역사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풍부한 맥락을 유효하게 읽어낸다.<sup>1)</sup> 다만 위에서도 살펴보았듯, 오혜진의 평론집에 실린 글들이 2015년 이후의 한국문학장에서 우리에게 육박해온 문제들에 매우 밀착하여 드잡이해온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글들을 2000년대 중반의 ‘문학과 정치’ 담론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못지않게 지난 오 년 여 동안 한국문학장에서 숨 가쁘고 밀도 높게 진행되어온 변화와 더 맞물려 살펴보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문학장의 비평담론에 성실하게 응답해온 김미정의 평론집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는 사실임은 물론이다.

요컨대 이 두 비평집은 지난 몇 년 간 한국문학의 비평장의 연속적인 변화를 성실하게 통과하면서, 그 과정에서 페미니즘, 문학성, 독자, 재현, 윤리, 취향, 공동체, 운동, 정동과 같이 가장 논쟁적인 주제들을 한국사회의 변동과 맞물려 가시화하고 담론화한 하나의 ‘현상’이다. 그간의 비평장에서 일어난 변화를 잠시 살펴보자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문학의 재현 및 윤리 문제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2015년 6월 신경숙 표절 사태 이후 문단 권력이 비판되어 그와 맞물리는 문예지 편집위원 교체, 평론가의 세대론, 지면 분배의 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2016년에는 문단 내 성폭력 고발 및 페미니즘 리부트가 전면적으

1) 이우창, 『문학을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법』, 『학산문학』105호, 2019.

로 이어졌으며, 2017년에는 『82년생 김지영』(민음사, 2016)이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관련하여 정치적 올바름, 재현, 독자, 미학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비평담론이 활성화되었고, 2018년에는 페미니즘과 퀴어 소설이 동시대 한국문학장을 주도하고 활기를 부여하며 약진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 출간된 김미정과 오혜진의 비평집은 이러한 연속적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읽혀야 한다. 이 시기 한국문학장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고 날카롭게 반응한 비평을 한 권의 비평집으로 묶일 만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 두 책이 무엇보다도 페미니스트의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곡점들을 이끌어내고 담론을 형성해온 가장 중요한 동력이 페미니즘 담론이기 때문이다.<sup>2)</sup>

## 2.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 김미정의 『움직이는 별자리들』에서 1부는 주로 2015년 이후 문학 및 비평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정동의 변화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2부에서는 기존의 문학에서 이야기되어왔던 공동체와 개인의 이항적인 관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소녀와 소년, AI, 신자유주의 이후의 개인 등 ‘포스트 개인’이라는 느슨한 개념으로 사유하고, 3부에서는 1960-70년대 문예공론장과 1980년대 문학장부터 시작하여 2010년대의 은희경, 윤이형, 배수아에 이르기까지 문학을 읽고 쓰

2) 그런 점에서 김미정과 오혜진의 평론집을 최근 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출간되고 있는 페미니즘 비평 기획 도서들과 같은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다. 이를테면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한국문학사를 다시 살펴보는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민음사, 2018), 열세 명의 여성 평론가들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서로 주고받으며 제출한 비평과 연구를 모은 아카이브 『문학은 위험하다』(민음사, 2019)와 같은 기획은 2015년 이후 한국 비평장의 전반적인 형질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 평론집들을 더 붙어 읽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고 사유하는 장소성을 성찰한다. “잠재성, 운동, 사건, 삶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시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비평집은, 그 부제에서 선택된 단어들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학이 텍스트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품은 채 움직이고 사건화되어 삶과 관계 맺는 대상으로 본다.

딱딱하게 고정된 언어 텍스트 이면의 잠재성을 포착하려는 김미정의 시각은 그가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왔던 “정동”이라는 주제와 맞물린다. 김미정은 서론에서 정동이 “궁극적으로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을 힘들의 증감, 즉 ‘존재력’ontopower에 관한 것”(9쪽)임을 분명히 하고, 정동이라는 개념적 도구를 통해 단지 문학과 사회 현상에 대한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를 재고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김미정이 가장 주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정동은 이 책 전반에서 구체적인 문학 텍스트 및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날카로운 개념적 수단이다. 이를테면, 『흔들리는 재현·대의의 시간』에서 2017년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논쟁에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프레이밍이 가지는 빈약성을 지적할 때 정동이라는 개념의 도입은 ‘정치적 올바름’과 ‘미학성’이라는 빈약한 이분법적 구도를 무화하고 독자들의 욕망 및 매체를 둘러싼 감각 변화를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2부의 제목인 〈공통장을 이야기하기 위한 예비 작업: ‘포스트 개인’의 사유를 중심으로〉에서 잘 드러나듯이, 결국 김미정의 글들은 ‘공통장(communs)’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공통장’에 대한 김미정의 관심은 현재 한국문학장에서 각자의 조건과 위치에서 발화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공유하고 있고,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시대적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쓰기의 존재론』에 제시되어 있듯, 그것은 동시대 한국사회의 여러 국면들과 관련된 정동의 문제다. 304낭독회를 비롯하여 세월호와 관련된 작가-시민의 자발적 쓰기의 현장을 짚어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2016년 강남역과 구의역 사건에서 비롯된 여러 글쓰기 형태는 ‘정동-쓰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분절적

인 개별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움직이는 별자리들』에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여 “스스로 무리를 이루고 자기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임(assembly)”(22쪽)과도 설명되면서,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서 이어진 고발의 글쓰기들이 결국 “문학의 구성원이 누구이며 문학이 무엇인지의 질문”(33쪽)을 심화하면서 공론장 안팎의 네트워킹을 가능케 했다는 분석과도 이어진다. 요컨대 정동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둔 ‘공통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하여 강남역과 구의역 사건, 그리고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문학장 및 글쓰기의 형질 자체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움직임은 김미정은 “근대의 원리로서의 대의, 재현, 표상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문학(예술)의 가능한, 잠재된 다양성의 범위와 질을 묻는”(45쪽) 행위라고 명시하면서, 결국 이것이 예술의 존재론에 닿고 있는 문제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공통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단지 동시대 문학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바, 흥미로운 것은 오히려 이러한 문제의식과 지향이 1990년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통장에 대한 김미정의 중요한 시각은 지금까지 한국문학장에 구성되어온 방식이 “오랫동안 다수, 주류, 커다란 가치를 재현하는 일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음에도 “이미 주어진 공통성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나갈 공통성들”(96쪽)을 향해 더 고투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이때 최근 변화의 흐름들에 있어 비교점으로 전체되고 있는 것은, ‘공동체’와 ‘개인’을 배타적인 영역으로 분리해온 1990년대 이전 한국문학장의 형질이다. 1990년대에 ‘공동체’와 배리된 채 논의되어온 ‘개인’이라는 개념과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담론은, 결국 2014년 이후 한국문학장에서 두 개념을 어떻게 접합할지의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3.

김미정이 1990년대의 문학장으로부터 이어져온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전반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는 한편 오혜진의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은 보다 가까운 최근 4-5년 간 한국문학장의 변화 흐름에 더 밀착해서 논의를 이어나간다. 오혜진의 글들에서는 앞서 언급한 김미정의 글들을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퇴행의 시대와 ‘K문학/비평’의 종말』에서 2015년의 문학권력 논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미정이 “‘상업주의 비판’이 실종되거나 다른 문제들로 흡수됐다”(81쪽)고 말했던 지적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의 주요 문예지에 대한 비판과 비교하는 대목 등이 그렇다. 다만 김미정의 경우 한국문학이 “스스로의 역량을 제한하고 그저 취향공동체화하는 것에 만족하는 듯 보인다”(『아르키메데스의 점에 대한 상상』, 146쪽)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면, 오혜진의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은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취향’이라는 개념을 전면적으로 내세워 그 안에 깃든 정치성을 더 문제화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내 ‘문학적 취향’이 만들어져온 과정의 기록이다. 그것은 다른 많은 ‘문학적 취향’들과의 치열한 경합 및 각축을 통해 이루어졌고, 내 ‘취향’ 역시 다시 한 번 그 경합의 장에 놓이기를 간절히 원한다. 자신의 ‘문학적 취향’을 공동의 지혜와 자산으로서 설득하고 정당화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 따라서 누군가 비정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념에 불과한 ‘취향’ 따위로 감히 ‘문학’을 설명하려 드느냐고 따진다면 이렇게 답하는 수밖에. ‘취향’을 한사코 정치적 무풍지대로 상상하려는 당신의 그 ‘취향’은 이미 매우 ‘정치적’이라고.<sup>3)</sup>

3) 오혜진, 『책머리에』,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오월의봄, 2019, 11-12쪽.

오혜진이 서문에서 명시했듯, 이 비평집에서 겨냥하고 있는 바는 새롭거나 독자적인 문학 취향을 개발하거나 제시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한국문학사에서 ‘문학적인 취향’이라는 대상 자체가 “치열한 경합 및 각축”을 통해 형성되어온 정치적인 산물임을, 그리고 그렇다면 그 ‘취향’의 형성과정 자체를 가시화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만으로 한국문학의 가장 주요한 질문들을 깊이 분석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일에 가깝다. 그리고 그 과정은 2019년인 지금, 문학이 더 이상 대단한 진리나 계몽적인 가치를 담보한다고 여겨지지 않는 이 시대에 문학과 비평이 어떤 방식으로 유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존재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문학적인 취향』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대, 2000년대 문학을 통과하면서 기존 한국문학의 주체를 자임했던 지식인 남성 독자들 대신 새로운 세대와 젠더의 독자들로 일종의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과정(1부), ‘민주화’ 이후 진보적인 위치로 자기정체화한 한국문학에서도 여전히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소수자의 재현 문제(2부), 최은영, 강화길, 전경린, 조선희, 명지현 등 여성 작가들의 여성 서사에 담긴 정치적, 미학적 상상력(3부), 정상성이라는 개념 안에 작동하고 있는 정치성을 드러내는 퀴어 서사에 대한 분석(4부), 그리고 용산참사, 세월호참사와 같은 사회적인 사건들과 연루되어 있는 담론(5부)이 그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문학과 문화 현상뿐만 아니라 영화, TV드라마, 웹툰,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이 구성이 철저하게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면서도, 결국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문학장의 변화를 유기적인 흐름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1부에서 개입하고 있는 2010년대 초중반의 장편소설의 흐름 및 남성서사, 그리고 2015년의 문학권력 논쟁은 2부에서 그러한 논쟁들이 본격적인 페미니스트 서사에 관한 담론으로 전환되고, 3부에서는 그러한 담론들이 구체적인 문학 텍스트와 만났을 때 어떠한 생산적인 논의들이 촉발되는지 보여준다. 4부에서 다루고 있는 퀴어 서사들에 대한 분석은 1-3부에서 다루었던 담론들이

논의된 기반 위에서야 더 구체적으로 독해될 수 있는, 최근 한국장에서 가장 뜨겁고 첨예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제출된 『지금 한국문학장에서 ‘퀴어한 것’은 무엇인가』는 동시대 퀴어문학비평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식론적인 틀, 이룰테면 퀴어서사를 당사자주의나 정체성정치로 환원하면서 탈정치화하는 시각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과정에서 퀴어 시민권/성원권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비평적인 분석 도구로 채택하고 제시하는 셈인데, 이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이어져온 페미니즘 서사 비평에서 문제시되었던 배제의 정치학 및 소수자 인권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2015년에 발표된 『퇴행의 시대와 ‘K문학/비평’의 종말』에서 “한국(순)문학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던 동성(성)애와 퀴어정치의 문제”(105쪽)를 비롯해 과거에 하위문화로 취급되었던 서사가 기존의 한국문단에서 이루어져온 재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더 본격적인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질문이 이후의 글에서 대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필자의 단지 일관적인 관심사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넘어, 결국 이 비평집이 출간된 2019년, 지금 여기의 한국문학장에서 가장 뜨겁고 첨예한 문제가 어떤 지점을 통과해왔는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4.

이 서평을 시작하면서 김미정과 오혜진의 두 평론집이 매우 비슷한 시기에 쓰이고 출간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살펴보았듯이 두 책은 2015년 이후 한국문학장이 쉼 없이 제기해온 질문들에 성실하게 맞부딪치고 응답해온 기록이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의 핵심이 결국 문학은 무엇인가, 무엇이 문학을 문학이게 하는가, 다시 말해, 문학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일 것이다. 김미정이 말한 대로, “문



학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의 질문은, 문학의 특권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시절의 산물”(『아르키메데스의 점에 대한 상상』, 153쪽)이라면, 2015년 이후 우리가 질문해야 했던 것은 바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왔던 “문학의 특권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성하고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문학과 비평이라는 영역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기능해왔던 역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오혜진의 비평집이 토했듯 이 시간 동안 장편소설 및 남성 서사,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상하는 페미니스트 서사. 그리고 한국사회의 정상성을 심문하는 퀴어 서사로 우리의 문학적인 취향이 경합하는 장이 움직여왔다면, 두 책이 주로 주목하고 다루고 있는 2015년 이후의 시간, 그러니까 한국문학을 읽고 쓰는 우리의 문학적인 취향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움직여왔던 시간이야말로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문학적인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